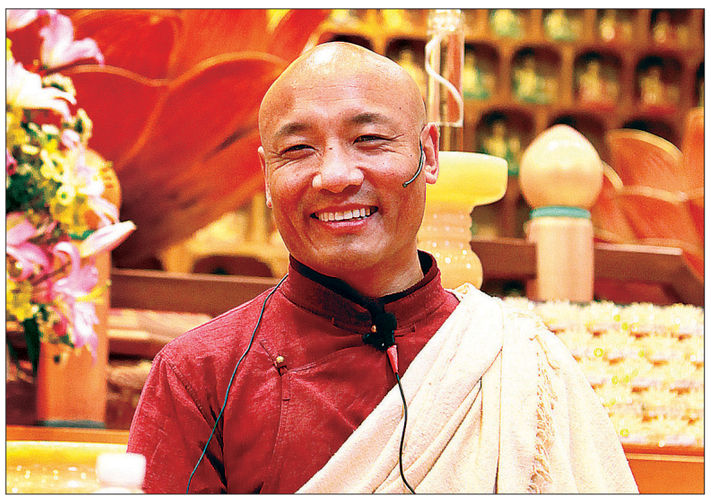
티베트 수행, 한국 소개의 장 열린다

아남 툽텐 린포체 방한
대중 · 집중수련회 열어

12월 7~8일 국제선센터 강좌
9~14일 백담사 집중수행 개최
"마음 고통, 행복 바꾸는 방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7~14일 일주일간 티베트 전통 수행법을 전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남 툽텐 린포체가 다시 방한한다. 두 차례에 걸쳐 로종 수행에 대한 강좌와 함께 집중수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아남툽텐 린포체 초청 '로종'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닝마파 전통수행을 익혔다. 라마 추르 로와 라마 갈왕으로부터 사사받은 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티베트 불교 수행 전파에 나섰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50여 개가 넘는 다르마타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라이브스트림'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다르마 리더쉽 프로그램〉을 조건 없이 가르치고 있다.

2018년에는 다르마타 한국상가도 형성돼 10월 첫 행사로 티벳 오명불학원을 설립한 직메 푼촉 린포체의 직계 제자인 올겐 최왕 린포체 방한법회를 개최했다.

특히 아남 툽텐 린포체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유머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방한에서 지도하는 로종 수행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수행으로, 티베트불교의 체계적인 명상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세첸코리아 측에서는 "로종 수행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고 다른 내 안의 좋은 성품을 올려 자비심을 발현하는 것"이라며 "자비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12월 7~8일 진행되는 로종 수행에 대한 대중강연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열리며, 선착순 120명에 참가비는 8만원이다. 세첸 & 행복수업 회원과 스님의 경우 6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이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는 '마음의 본성' 백담사 집중수행은 선착순 90명에 참가비 38만원이다. 역시 세첸 & 행복수업 회원과 스님의 경우 32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로종 수행은 고통의 심리를 행복의 심리로 바꾸는 현대화된 명상수행법"이라며 "많은 현대인들이 강연을 듣고 삶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4442-3960

"한암 스님 수행처 北맹산우두암 복원"

원행 스님 등 종교지도자,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논의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국내 종교지도자들과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회의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 스님의 수행처인 북한 평안도 맹산우두암 복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서 열린 '제109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기념식' 이후 진행된 남북종교지도자 기념회의서 우리나라 종교지도자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지영)는 이 같이 협의했다.

원행 스님에 따르면 양측은 △한암 스님 수행터인 평안도 맹산우두암 방문 및 복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스님 고향인 평안남도 덕천군 방문 및 뿌리찾기 △2019년 안중근 110주기 기념행사 △천주교 안중근 터 해주성당 복원 △전남교육청 학생순례단 방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행사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원행 스님과 북측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장, 김철웅 장충성당 회장, 허일용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이해 돕는 자리 열린다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9월 인도네시아 지진 재해 발생으로 국제구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NGO 단체 활동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구촌공생회 前 케냐지부장 탄하 스님이 '국제개발협력 현장 이야기', 김규환 굿월드 자선은행 사무국장이 '불교계국제개발협력협의회 소개 및 봉사단원 모집 안내'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구글독스(https://goo.gl/forms/xlUXvC2mexa8VX2P2) 또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jabinanum.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02)723-5101 김지원 기자

"자타불이 근거한 실천, 불교 신뢰 높여"

한국불교발전硏, 11월 5일
개원 25주년 학술심포지엄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은 11월 5일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혜총)은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혜총 스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모든 제도가 수행 위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혜총 스님은 "종단은 운영체계의 근간인 종헌 종법을 수 차례에 걸쳐 개정했지만 승가의 근본인 부처님 계율과 율장이 하나도 스며들지 못했다"면서 "이제 주지 중심의 관리불교가 조실 중심의 수행불교로 돌아가고, 행정 위주로 된 모든 종단제도는 수행 위주의 외호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승가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원로 중심의 수행가풍과 사자상승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며 "원로 스님을 중심으로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사부대중이 화합해 전법교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불교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진단과 발전 방안들이 제기됐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불교 현실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서 현재 한국불교가 교단적 · 사회적으로 위기임을 되짚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비판과 자타불이에 근거한 자비로운 분노 ·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에서 전법 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핵심 신도 교육과 조직화에 힘쓸 것을 제언했다.

또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불자회 불이회 회장은 불교 재가운동의 발전 방안을 짚었으며, 이덕진 前 창원문성대 교수는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개혁할 것인가'를 통해 한국불교의 소통 방안으로 △베풀기와 더불어 살기 △사부대중 위치 바로잡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월서 스님, 미얀마 미래세대에 희망 심다

천호월서희망재단, 미얀마 오지 중학교 건립


11월 3일 열린 쉐띳중학교 낙성식.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이자 보은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미얀마 오지 마을에서 교육을 통한 자비보시행을 실천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11월 3일 미얀마 바간의 쉐띳마을에서 중학교 낙성식을 개최했다. 쉐띳마을은 작은 시골 오지마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나무로 된 건물 1동을 쓰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단은 5월부터 학교 건립을 위한 불사를 시작했고, 월서 스님의 학교 건립 기금 후원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낙성식이 열렸다.

이번에 세워진 쉐띳마을 중학교는 60명씩 5개반으로 총 3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학교는 2019년 6월부터 1학년 신입생 20여 명을 시작으로 운영된다.

낙성식에는 미얀마 정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국회의원 등 정부인사 30여 명이 참석했고, 학생 140명, 교사 14명, 마을주민 700여 명이 동참했다.

낙성식은 700여 주민과 학생들이 꽃을 뿌리며 스님의 공덕을 축복하는 축복경 합송으로 시작됐다.

1부 행사로 중학교 낙성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학교 경내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름이 적혀있는 비석이 제막됐다. 2부 행사에는 준공 기념 월서 스님의 인사말과 정부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월서 스님은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며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말처럼 미얀마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 교육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